

연중 제2주일

기도서 P. 422 C해

제1독서 (이 사 66, 18-21)

제2독서 (히 브 12, 5-7, 11-13)

복 음 (루 가 17, 22-30)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강론



열린 좁은 문

이 태 주 신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 갈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십시오. (루가 13장 24절)”

우리는 언제 어떻게 대처해 나가며 살아야 할까라는 급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즉 기술과 능력과 재력이 있는 자만이 급속한 변화의 와중 속에서 하나의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생존경쟁의 사회라는 것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다.

창조된 이후 카인과 아벨에서부터 이미 인간은 생존경쟁의 시대로 돌입 했다고 믿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삶이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얻게 되는 순간부터 최소한 자신의 생존 가치를 위해서는 남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강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생존을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의 한계내에서 무슨 일든지 할려고 하고 윤리 도덕의 여건하에서도 그 상태가 어려움에 도달 될 때에는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잃으면서서까지도 자신의 생존을 유지 할려고 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삶의 과제 안에서 신앙을 갖고있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써의 또 하나의 다른 삶을 생각해야 될것이다.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는 “구원의 문은 좁으므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삶은 “죽음”이라는 확실하고도 예측할 수 없는 사설의 한계 안에서만이 그 가치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안에서 신앙적인 삶은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난 인간적인 삶의 단계를 넘어서 승화된 영원한 삶으로의 귀착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시적인 현실에만 눈을 뜨고 일보 더 앞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삶의 세계가 있는데도 그 영역을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그럴까야”라는 하나의 가능성의 세계로만 여겨버리는 불확실한 태도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그 구원의 문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신 분이시이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을 통과 해야만 될 우리가 활짝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을 향하는 조그마한 문에도 도달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대로 우리는 신앙인만 됐다고 해서 그 구원의 문에 도달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이다.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인이 지키고 따라야 할 바를 제시 해주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집착력을 구원의 나라에까지 이르려는 욕심을 갖고 진정한 삶에 대한 강한 집착력을 갖음으로써 우리는 또하나의 거룩한 삶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속담에 “한입에 다 먹으려다 체 한다”는 얘기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숨에 구원을 얻으려고 짧은 열성으로서만 신앙에 대한 충족성을 얻으려해서는 안될 것이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던 것은 다 하라는 복음의 말씀에 좀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꾸준히 그리고 온전히 그분에게 말기고 우리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서 아무도 아버지께 나가지 못하리라”

(오룡동 전주교회 주임신부)



폴란드에서

십자가의 승리가...

自由의 물결은 무서운 것이다. 공산국가인 폴란드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난지 벌써 두달째이다. 공산국가라면,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자의 천국이 라는데 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는가? 공산국가라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을텐데 어찌다 이렇게 되었는데? 폴란드만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커서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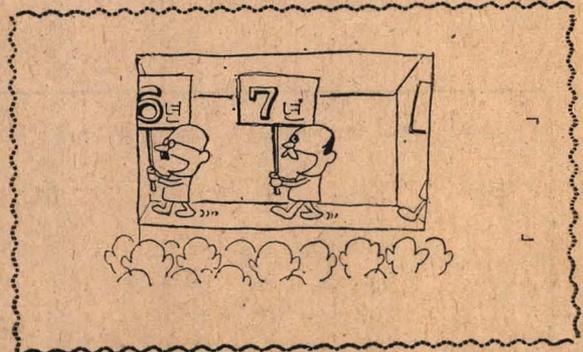
우리가 알고 있는 폴란드에 대한 상식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산국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구의 90%가 가톨릭 신자들인데도 공산국가라는 사실이다. 또한, 놀랄게도 공산국가인 그 나라에서 현재의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북아메리카와 서구라파에 나가 살고 있는 1천만명의 이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시사 해설가들은, 바로 위와 같은 몇가지 사실에서 파생되는 영향이 노동자들의 과감한 파업을 낳게 했다고 평한다. 문제는, 소련이 주권제한론을 내세우고 폴란드에 무력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소련의 무력개입은 거의 확실할 것이며, 지금은 그런 보도가 약간씩 나오고 있다.

공산 독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자의 파업은 체제를 흔들리게 하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극악의 사태에까지 이르른다면 공산체제가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폴란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피호름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십자가의 승리가, 교황을 내기까지한 폴란드에서, 큰 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기도하자. 사람이 체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체제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숲 정이 산책



은총 속에서

김 필로메나

十 주계 찬미와 감사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딘지도,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가라 하시지는 그곳으로, 또한 단하나 자신의 적장자 이삭을 한 마디의 불평도 망서림도 없이 제물로 바치려 했었지만...

믿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철부지인 내가 "천중에 개 뛰어들듯" 정말 꾸르실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영경이에 빨난 망아지마냥 뛰어들었던 꾸르실료.

비록 3박 4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천주교회안에도 평신도를 위해 이처럼 좋은 곳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슬며시 기독교의 부흥회 같은 것을 부러워하기도 했던 저였지만 꾸르실료를 통한 생활을 받고 보니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정성을 쏟는 사랑을, 진실된 교육을 우리 평신도에게 쏟아주려고 애쓰는지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실감하였습니다.

교육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것은 지도신부님 이하 임원신부님들, 자매님들의 철저한 희생·사랑·봉사의 태도였습니다. 임원신부님은 신부님들대로 우리 51명의 수강생을 지키는 목자답게 한마리의 양이라도 헛길로 들까 혹 탈이라도 들지 않을까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눈길들을 저희 수강생 모두에게서 한시도 빼지 않으시고, 임원자매님들은 자매님들대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지켜보시던 그사랑, 고통,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 순간이라도 더 많이 하느님 은총을 느끼고 체험하고 확인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들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철저한 점수와 희생의 태도 속에서의 임원봉사 자매님들은 그대로 작은 성모님 그것이었습니니다.

이토록 정성을 쏟는 사랑의 실천장이 또 있을까? 저는 정말 꾸르실료 자체가 하느님 은총 바로 그것이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진실된 사랑의 교육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되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사랑하지 않았던 저였지만 꾸르실료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려는 불붙는 마음을 선물로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꾸르실료 동안에 보내지는 곳곳으로부터의 정성어린 영적·물질 빨랑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 그것임을 느꼈습니다, 빨랑까를 받는 동안 저같이 한번도 교회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눠보지 못한 제가 사랑의 빨랑까를 받아도 될까 하는 두려움과 고마움에 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꼭 그렇게 언젠가는 남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희열을 맛보아야지 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 결심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에 넘치는 그 은총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고 보답을 드려야할지 그 방법도 자제도 모르는 저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다만 저도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열애를 해야겠습니다.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어 연애의 묘법을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니다. 주님께서 그 묘리를 알려 주실 것을.

끝으로 이처럼 뜻깊고 사랑이 넘치는 곳에 자격도 갖

오랫만에 전방에서 교형 자매 여러분께 안부 인사를 올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과 신념에 따라 생활에 충실하고자 하실 때 남모르는 맘과 눈물과 기도를 많이 바치고 제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저도 불러주신 곳에서 군중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부성애적인 화애와 일치, 성자 예수께서 이룩하신 용서와 일치, 그리고 성령께서 불러 일으키시는 친교와 일치를 위해서 군인들의 사회에서 제가 할 일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생각에 어깨 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진듯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여러분의 성원으로 전강한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는 또 하나의 주님의 요청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주님의 집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20년 가까운 천주교 군중 역사를 가진 이곳에는 아직까지 성당도 사제관도, 주님의 성사와 전례를 위한 장소 하나 없고 오직 성모상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임시로 빌려 사용하던 관사까지 없어지고 보니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일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형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특별히 이 미천한 군중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기에는 너무나 부당한 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제 손으로 이 거룩한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우심을 간절하게 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 31일로 로사리오 30,000단 봉헌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성전 건립을 위해 다시 로사리오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장병들이 하느님께 귀의하고 정화되지 않는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짓는 성전을 마다 하실 것입니다. 삼가 우리들의 기도 운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80. 7.

정 승현 신부 올림

추지 못한 저를 선뜻 보내주신 본당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성어린 영적·물질빨랑까를 보내주신 수녀님들과 선배 꾸르실료 자매님들, 본당 각 신심단체교우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강생들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신부님들과 임원봉사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조그만 몸·마음·시간 이 모든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룡동 천주교회)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② 5669 번

주 최 남 수(아벨토니오)

(가톨릭 센터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께 전무·제대장식

유명강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2-2628

범 락도(낙배)·이 마리아

□교구소식□

금산 본당 대전 교구로 이관

본 교구 제 6 지구 소속 금산 본당이 금 8월 말로 대전 교구에 이관, 충남 교구 소속 본당으로 전적이 된다.

금산 본당은 본래 전라북도의 행정 구역이던 금산군이 충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일반 행정과 사무상에 다소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물론 교구 행정 구역과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이 대전과 가까운 관계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관을 고려해 오다가 금년에 교구에서 용단을 내린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교우들의 편의와 보다 효율적인 신앙지도 및 지역 선교 유대를 위하여 양 교구장님께서 배려 합의를, 최종 결정을 봄으로써 획기적인 거사가 이뤄진 것이라 생각한다.

이웃 교구에의 이관으로 금산에 모쪼록 더 큰 본당의 발전이 있기를 축원하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그러나, 1922년 이래 줄곧 본 교구 소속 교회로서 이 지역 빛나는 선조들의 일을 이어받아 복음 전파 대열에 함께 힘을 기울이던 본당 형제들이 이제 교구를 달리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편, 적이 아쉬움과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다.

사실 금산 지역은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유서깊은 요람으로 꼽히는 곳이기에 더 더욱 우리의 정이 고이는 본당이기도 하다. 이 교장은 특별히 전주 교구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을 비롯해 수많은 순교 선열들을 낸 성지요, 전라도 포교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신앙촌」으로 고히 일컫었던 전통과 피어린 신심의 고향이란 점에서 그 떨어짐이 안타깝고 섭섭함을 정말 우리의 솔직한 삼사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오직 하느님의 것, 주님과 복음만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이기에 그 질은 역사도 연고도 그 무슨 권리와 이권도 결코 조건일 수 없다. 그래 우리 아무런 미련 없이 오로지 주님의 더 큰 영광과 본 교장의 축복을 위해 새 교회 마냥 선뜻, 다시 주께 봉헌하며 본당 이관을 축하한다. 교황청의 인준과 축복을 의뢰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그리고 기쁘게, 어디 속하든 같은 그리스도 공동체인 금산 본당과 대전교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가득한 정과 축복을 빌어드리자. 그리고 그간 본 교회를 위해 봉직하신 역대 신부님들(16분)과 수녀님들 또 맘 흘려 본당을 가꿔온 수많은 회장님, 교형들께도 아울러 깊은 사의를 표해드리자. 주님의 강복을 축원 하면서...

◎ 금산 본당 현황(1979년 12월 3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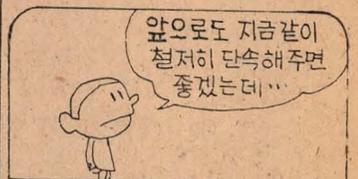
신자 총수 : 1,469명 (본당 1,158명, 공소 311명)

공소 2곳 : 지방리, 백암리

본당 자산 : 대지 총 5,539평, 전 268, 담 149평, 임야 126,000평, 건물 318평

산하 단체 : 사도회 외 21개 단체

요십이 (368) 김병오



사진자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애파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④ 4448 · ⑤ 2176

茶房 門을 열었습니다.
전주 전신전화국 앞 옛자리 지하
☎ ⑤ 5013 · 5011
임 금 님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차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⑤2377번

제2차 마인드 콘트롤 강좌 안내
일 시 : 80. 9. 11<목>부터
오전반 : 9시 30분
오후반 : 6시 30분
장 소 : 전주 가톨릭센터
강 사 : 김중배(말시아노)선생
무료 공개 강의 : 9. 11~12 (2일간)
연락처 : 가톨릭센터
전화 ③ 3498 · 7127번

◆ 오리표 생크 · 까스기구 일체 백곰표 보청기
동남 종합 씽크주방
동남 의료 과학 상사
김 낙 균(요셉)
전화 3-6900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정문옆)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⑤ 4577, 578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순교자 현양대회 기념 교리경시대회...8월 31일<일>, 공식미사 후
※ 범위...① 국민학교부-가. 마르코 복음, 나. 주요기도문, ② 중고등부-가. 마르코복음, 나. 주요기도문, 다. 가톨릭 교리서 3편(그리스도의 제명), ③ 일반부-가. 마르코 복음, 나. 예언서(야고스, 호세아, 미가), 다. 가톨릭 교리서 제 2편(교회와 성사)
※ 응시 예정자수 보고-8월 25일까지(명협 공문 80-4호 참조)
2. 순교자 현양대회 기념 사생대회 주제...「6·25와 순교자」
3. 레지오 마리에 간부 피정...4차 8월 25일<월> 오후 2시~26일<화>, 가톨릭 센터에서
4.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전북지부 제 2 차 총회...8월 30일<토> 오후 2시~31일<일> 오후 6시, 전동성당 회비-3천원, 지참물-수도복·기도서·묵주·성경·성가집·세면도구
5. 대학생 연합미사 장소 및 시간 변경 안내
장소: 노충성당→가톨릭 학생회관(덕진) 시간: 매주 화요일 5시→매주 화요일 6시(26일부터)

(중앙)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성필
사도 회장 김병규

- ※ **축!** 8월 28일은 김재덕(아우구스티노) 주교님 영명일입니다
영육간의 협조와 많은 기도 바랍니다
1. **축! 영명:** 문정현(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축하식-공식미사후 전신자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 순교자 현양대회 대비: 주일학교-25~30일 오후4시, 5시(4지구만 참조)
 3. **복자 성월 분당 행사 안내**
○영화상영: 9월13일(토) 오후8시 "토마스 모어"
○이누갈다 육중 서간 투구 및 입체 낭독: 9월24일 오후8시
○매주 수요일 특별 강의
 4. **중앙 여성 꾸르실로 울드레아**
9월6일 오전10시, 강당 여성 꾸르실리스타 14분 꼭 참석하세요
 5. **J. O. C 일반회:** 하느님, 나, 만남 강사-문정현 신부, 9월7일 오후2시, 강당 젊은 남·녀 직장인 많은 참석 바랍니다
 6. **중학생 임원회:** 30일 오후4시
 7. **예비자 교리 시작 했습니다:** 전신자 협조 바람
 8. **미납된 교무금을 납부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80,077원
성모승천 주일금: 365,440원

(서화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혈수

1. 어머니 미사시간 신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새벽미사는 없음
2. **레크레이션 강습:** 28일(목요일) 저녁8시
※ 강사: 김치영 선생님
3. **초·중·고생 교리 경시대회:** 31일(일) 오전 11시
학생들 전원 참석 바람(본당에서 시험볼)
4. **울드레아:** 26일<화> 저녁 8시30분
새로 탄생된 3명의 자매를 환영하면서
5. **L. M 옥외행사:** 27일<수> 오전10시
5개 pr단원 전원 참석 바랍니다(도시락 지참)
6. **다음주 전례 담당**
독서-오상팔·박장춘, 신자들의 기도-김재원

(술정리)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중·고등학교 학생 하기교리에 감사님들의 수고에 감사드**
리며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주교님 영명축일:** 8월28일, 많은 기도 바랍니다
3. **요안회 월례회:** 8월31일(복자 현양대회 예선)
4. **부녀회 월례회:** 9월6일
5. **피정 무사히 마쳤습니다**(유치원 수녀님)

(노충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윤
보좌 신부 나나
사도 회장 박준근

1. **성서강의:** 매주(월·화) 저녁 8시~9시까지
2.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성령체미나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합니다
3.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시편과 바룩서 전체
4. **인후아파트 특전미사:** 매주(토) 오후 8시
인후아파트 어린이 교리: 매주(토) 오후 3시
5. **교무금 납부의 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진복회 월례회:** 31일 공식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9월6일 저녁미사후
구역장, 사도회 임원, 심신단체장 꼭 참석하세요
3. **주일학교 교리 없음:** 미사는-3시
4. **유아세례:** 9월5일 10시미사후
5. **주교님 영명축일:** 28일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익
보좌 신부 김기홍
사도 회장 유석중

1. **교리 경시대회:** 8월31일 11시30분~12시30분
대상: 초·중·고·일반부
 2. **성가연습:** 25일부터 저녁미사후
 3. **주교님 영명축일:** 8월28일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4. **교무금 미납자는 속히 완납바랍니다**
 5.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사회자-이신희, 독서-최병래·박중구
공식미사: 사회자-이영자, 독서-안득수·박도식
저녁미사: 사회자-김윤주, 독서-김동수·변해식
- **지난주 봉헌금:** 383,860원
성모 승천금: 307,46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2. **봉헌금 주 완납바람**
매주일 봉헌되는 교무금 완납 요망
3. **미사시간 엄수:** 미사에 늦지 않도록 주의
4. **L. M 간부 제 4차 피정:** 25~26일
5. **복자 신용조합 전화 안내:** ④4404
6. **술정리성당 신축기금 약속하신 분들 속히 납부 바람**
총: 1,407,000원, 총납부액: 1,287,000원,
미수: 120,00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협

1. 수녀원 신축 회사금 신청서를 빨리 내주세요
 2. **부녀회 월례회:** 다음주 있습니다
 3. **8월 28일 분당신부 영명축일:** 축하연 없습니다
 4. **청년회 정기총회:** 9월7일(일) 오후2시, 파티마성당
 5. **오늘은 문신부님 영명축일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4,480원 **어린이헌금:** 2,150원
교무금: 112,000원